

# 가치관을 정립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2016\*\*\*\*\* 영어영문학과 이현우

## 목차

서론

본론

- 1 인간은 취한다.
  - 1.1 다양한 욕망의 존재
  - 1.2 욕망에서 자라나는 가치
- 2 취해서 행복하다.
  - 2.1 상대적인 행복관
  - 2.2 행복에 대한 가치관의 기여
- 3 왜 취해야만 할까?
  - 3.1 시간의 노예, 인간
  - 3.2 유한성으로 인해 무한함을 얻다.



결론

## 서론

“빛이 있으라” 창세기 성경에서 신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였다. 하지만 현대 인류는 빛을 만들고 그 눈부심에 눈을 감아버렸다. 인간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지의 자연을 개척하고, 가상 세계를 만들기도 하는 등 과거에 상상도 못 할 지경으로 진보하였다. 삶의 질은 늘어났지만 과연 지금 인간은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 인간은 변함없이 비탄에 빠져있으며 행복을 찾기 위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는 행복을 쟁취하고자 한다면 외부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제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탐구해야 하는 점을 시사한다. 세상은 개개인이 구성하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에 맞춰 세계를 인식하고, 욕망을 키워나간다. 그리고 그 욕망에 취하여 행복을 느낀다. 세상은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게 비추어지며 행복과 불행의 길 또한 상이하다. 때문에 자신을 알아야만 더 행복한 세상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기술의 편리를 누리는 데 바빠 자아를 탐구하는 데에는 소홀하다. 삶의 질이 높아져도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에 있다.

그렇다면 행복을 거머쥐게 하는 인간의 내제적인 요인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사람은 욕구로부터 욕망을 키운다. 보편적인 욕망도 있고 서로 상이한 욕망도 있지만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욕망을 바탕으로 한 ‘도취의 대상’을 창조해내는 특성이 있다. 사소한 의미에서의 목표부터 중대한 사상과 소명 의식까지 인간이 도취하는 범주는 넓다. 본 글은 다양한 도취의 대상 중 사상, 철학 그리고 종교와 같은 ‘가치’에 심취하는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든 무교인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가치를 섬기며 살아간다. 이는 인간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유한성을 인지하며, 무한한 시간 속에 존재의 의미를 갈구한다. 광활한 우주와 방대한 시간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나약함을 지닌 존재가 인간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찾아오는 다양한 욕망마저 나아갈 길을 잃게 한다. 반면, 가치는 지도와도 같다. 가치관은 인간에게 목표의식을 부여하여 단적으로는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게 되는 요소가 된다. 지도에 따라 길을 수월하게 찾거나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처럼, 어느 가치관에 도취하냐에 따라 행복으로, 또는 파멸로 치달는다.

도취하는 특성은 인간의 삶과 사고의 흐름이 녹아 든 학문인 문학을 통해서도 증명 가능하다. 다양한 문학 작품의 등장인물 가운데 17세기 스페인 문학 ‘돈키호테’의 주인공이 이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기사도의 실현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에 심취한 돈키호테는 현실을 왜곡하고 부인할 정도로 자신의 이상에 미쳐있다. 그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역경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행해하지 않는다. 그를 걱정한 동향의 신부가 강제로 여행길을 막아 더 이상 그가 꿈을 꿀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불행을 체감한다. 돈키호테가 미쳤다는 평을 듣는 건 그 가치관이 구시대적이고 지나치게 심취해 있어서지 꿈을 꾸어서가 아니다. 모든 인간은 계획, 진로, 종교, 사상 등

무언가에 홀려있다. 돈키호테를 저지하려던 신부 또한, 종교와 창조주의 교리에 몰두하여 자신의 인생을 설계한 인물이다. 신부의 가치관을 세워준 성경에서도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을 드러낸다. 그 중에서도 신과 인간의 관계가 뚜렷이 나타나는 창세기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신의 모습과 그를 따르는 인간의 삶을 묘사한다. 창세기 중 삶을 신의 뜻에 따라 설계하는 인물들은 포장하는 단어는 달라도 도취한 인간들과, 돈키호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두와 같다. 본 글은 인간이 어떻게 욕망을 바탕으로 가치관을 창조해내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어떻게 그 대상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인과관계를 분석해내 행복에 관한 더 큰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나아가 사람은 왜 가치관이 없이 살 수 없는지, 인간을 쫓는 유한성의 그림자를 밝혀보겠다.

## 본론

### 인간은 취한다.

#### 1.1 다양한 욕망의 존재

인간은 동력은 심장이 아니라 욕구라고 봐도 무방하다. 사람이 숨을 쉬고 밥을 먹고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은 본능과 다름없는 욕구덕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욕구의 충족만을 위한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닌 생명체의 삶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스스로를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여겼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이성을 근거로 사람을 차별화하고 종교인들은 신의 교리, 그 중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창세기를 근거로 삼는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들짐승과 날짐승을 모두 부려라.” 이렇듯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모두 인간의 특별함을 각각의 이유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 욕구의 역할을 과소평가 할 수 없음에는 동의한다. 이는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동물들의 욕구에서 한 차원 나아간, 욕망이 자리잡고 있으며 욕망이 인간의 차별화에 기여하여서이다. 생명체로서 인간에게 다양한 욕구들이 있다. 식욕, 성욕 수면욕 등 다양한 본능의 연장선을 인간은 느끼고, 실행하고자 한다. 매슬로라는 학자는 욕구를 다섯 단계로 분류하여 1단계는 생리적 욕구, 2단계는 안전 욕구, 3단계는 사회적 욕구, 4단계는 존경 욕구와 다섯 번째 단계는 자아실현 욕구라고 구분하였다. 그는 욕구를 체계화시켜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로 순차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필자는 욕구의 발현시기에 규칙이 있을 순 있어도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상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1차적인 욕구에 휩쓸려 다른 단계의 욕구들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일화들만 봐도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성적 욕구 등으로 인해 스스로 안전이나 명예를 저버린 경우가 많다. 일례로 야곱의 딸, 다나를 겁탈한 지역 주민들이나, 소돔의 타락한 주민들 등은 일차원적인 욕구의 해소를 하려 더 상위 차원의 욕구를 포

기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로 다가올 일을 예측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고 이로 인해 목숨까지 잃었다. 이는 욕구들의 단계를 뛰어넘는 욕망의 존재를 뜻한다. 욕망은 사람을 현혹시켜 이성적 사고를 멀리하고 욕구의 충족만을 우선시시킨다. 욕망은 욕구로부터 자라나고 욕망은 인간을 바꾼다, 그것이 어느 방향이든.

## 1.2 욕망에서 자라나는 가치

다양한 단계의 욕구만큼 욕망들도 성격이 상이하다. 욕망은 욕구를 기초로 하는데 이 욕구들에 따라 욕망들도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1~2단계의 욕구, 이들의 결핍에서 비롯되는 욕망이다. 다른 하나는 3~5단계의 욕구에서 나오는 고차원적인 욕망이다. 전자는 기본적인 욕구들의 충족이 어려운 사회나 사회 속에서 소외된 인물들에게서 나타난다. 돈키호테의 등장 인물 싼초를 살펴보자. 그는 여행이 끝날 경우 약속된 재물을 목표로 돈키호테를 따라 여행을 나선다. 11장에서 싼초는 이렇게 말한다: “소인은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혼자 서서 먹는 게 편하고 좋구만요. 방랑기사의 법도가 어떻든.....(중략)”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재물이 풍부한 적 없애 배 굶으며 살아왔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재물을 얻어야 하는 의무를 상기 당하고 이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된다. 자연스레 그는 음식을 확보할 수 있는 재물에 대한 욕망을 키워나간 것이다. 반면 후자의 욕망을 키우는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 성찰과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여유가 있다. 자신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구성해나간다. 원초적인 욕구를 벗어나 사회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인지하고, 무엇보다 타인을 인식한다. 타인과 스스로를 비교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여 가치관을 세우고 이에 따른 삶을 살기도 한다. 돈키호테는 비록 정도가 심하지만 심화된 욕망을 바탕으로 가치관을 소유한 인물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기사가 되는 것을 자신의 존재의 이유라고 여긴다. 기사 소설을 읽으며 느끼게 된 희열과 소설 속 인물들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그에게 불의에 맞서고 육체의 고됨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안겨준 것이다. 이렇듯 가치관은 욕망으로부터 탄생한다. 인간의 욕망은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지만 모두 행복을 지향한다. 때문에 가치관들도 이것을 반영하여 사람이 만족감을 느끼게끔 설계되어 있다.

## 취해서 행복하다.

### 2.1 상대적인 행복관

가치관의 유무는 행복을 결정짓는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가치에도 취해야 비로소 행복을 찾을 수 있지만, 그릇된 가치관에 심취하거나,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 모든 가치관이 사람을 행복한 길로 안내하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행복이라는 개념이 어렵고 좁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행복의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모호해서이다. 어떤 이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행복을 느끼고 다른 이는 문제의 고뇌와

생각 끝에 답을 찾으면 행복해한다. 사람간의 행복을 느끼는 기준은 불규칙적이고 다양하여 특정 어구를 통해 행복을 정의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나 요소에게는 규칙성이 있고, 일괄성도 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세상을 머릿속에 담고 있다.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주위의 물질들을 인식해가며 독자적인 정의를 내린다. 호칭이 동일한 사물도 개인의 경험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식되기 마련인데 감정은 더더욱 그렇다. 행복의 대한 명확한 정의를 언어로 풀지는 못해도 어느 경험이 행복한지 등에 따른 기준이 있다. 이때 내면의 틀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가치관이다. 가치관에 따라 특정 감각들이나 경험들로 받는 자극의 작용이 달라지고 사람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게끔 한다. 황금만능주의의 빠진 사람, 이성간의 사랑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 금욕적인 삶을 즐기는 사람 모두 대상만 다를 뿐 모두 동일하게 가치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간다.

## 2.2 행복에 대한 가치관의 기여

가치관은 추구할 대상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에게 행복을 부여한다. 물두의 대상이나 도취의 대상 없이 인간은 공허하다. 욕구가 충족이 된 이들에게 찾아오는 보편적 욕구는 바로 호기심이다. 인간은 단순히 주변에 대한 호기심을 뛰어넘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는 특이점이 있다. 이에 발전된 욕망이 소명 또는 천명을 찾는 것이다. 역사에 걸쳐 인간들은 이러한 욕망에 대한 대답을 해왔다. 종교인들은 창조주와 신의 섭리에서 존재 이유를 찾고, 철학자들은 사상과 철학을 통해 스스로를 설명한다. 이런 가치관들은 스스로 하는 행동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의미를 갖게 해준다. 스스로 세운 의미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존재함을 재확인하고 이를 지키며 삶을 영위한다. 때로는 고난을 겪으며 불행을 느껴 가치관의 변화가 오기도 할 것이다. 결국은 사람은 각자의 가치관을 통해 행복하다. 창세기의 인물 요셉을 살펴보자.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등 불운한 경험을 다분히 겪는다. 그렇지만 그는 고통을 감내하여 권력과 부를 얻고 형들을 용서하기까지 한다. 이는 그의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기인한다. 희망, 죄의 용서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윤리관을 섬기는 요셉은 그에게 온 고난을 일시적인 것이라 치부하고 다가올 밝은 미래를 믿었다. 이를 통해 그는 출세를 할 수 있었으며 형제들을 다시 만나고도 용서하였다. 그의 행위보다 의미 깊은 것은 그의 사고관이 그가 행복을 체감하게 된 원동력이 된 것이다. 만약 그의 가치가 희망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면 요셉은 끝내 행복을 못 거머쥐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의지하는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다. 만약 너무 이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기다리며 불행해할 것이고 너무 세속적이라면 끝없이 가치가 흔들릴 것이다.

## 왜 취해야만 할까?

### 3.1 시간의 노예, 인간

인간이 가치관과 현실 간 괴리에서 불행을 느낀다고 가치관이 없는 이들이 행복하지는 않다. 오히려 가치관을 잃어버리거나 찾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 큰 절망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사람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내려는 이유를 필자는 인간의 통시적 시야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구분하여 인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무한한 시간 속에 자신의 유한함을 인지하고 광활한 우주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시공간은 티끌만하다는 것을 자각하여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자신이 가진 미약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동시에 자신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음을 느낀다. 삶의 유한성과 시간의 무한성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게까지 휩쓸려 갈피를 못 잡는다. 과거로부터 후회를, 미래로부터는 걱정을, 이것이야말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붙게 된 저주가 아닐까? 그래서 인간은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한다.

### 3.2 유한성으로 인해 무한함을 얻다.

다가오는 종(口)에 대한 걱정을 없애고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해주는 것이 가치관이다. (간혹 허무주의 같이 유한함과 덧없음을 강조하는 가치들도 있지만, 이들도 결국 도취의 대상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같다.) 무의식적으로 많은 철학, 종교, 사상까지도 인간의 유한성을 뛰어넘는데 초점을 맞춘다. 돈키호테의 기사도 정신도 의를 추구하고 선행을 베풀어 이름을 남기는 것을 중시한다. 종교는 유한성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가치관이다. 기독교의 성경은 사후세계, 천국을 통해 무한한 삶 육신의 부활을 묘사하여 믿는 자에게 영원을 선사함을 강조한다. 창세기의 아브라함, 야곱, 요셉 등 모두 야훼에게 한정된 삶으로부터 구원을 약속 받고 그의 뜻에 순응한다. 그렇다면 가치관을 갖는 것이 냉정한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아편과도 같은 것일까?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은 유한함에게서 눈을 돌리기 위해 세운 가치관으로부터 무한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세상은 인간 개개인이 구성하는 것이다. 때문에 삶이 덧없다고 믿어 아무것도 안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믿은 대로 덧없는 삶을 살게 된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가치관을 세워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 현재에 충실하게 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시간에 무한한 자취를 남긴다. 그 가치관이 삶이 유한해서 더 값어치 있다고 믿든 삶이 무한하니 더욱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든, 어떤 식으로든 가치관은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를 만들어낸다. 사회, 문명, 기술, 과학 등 인간이 이룩한 모든 것은 인간 하나 하나의 가치관이 시간을 넘어 이어져서 나온 결과이다. 시간의 강박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행복을 찾을 여유가 생긴다. 행복은 이렇게 스스로를 창조시킨 사람이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며, 때문에 무한함을 향한 증표라고도 볼 수 있다. 어떤 가치를 섬기느냐에 따라 불행해지기도 하지만 결국 인간은 행복을 찾을 때까지 가치를 만들어낸다.

## 결론

인간은 다양한 욕구를 갖고 태어난다. 생명체로서 다양한 생리적 욕구들부터, 사회적 존재로서 느끼는 욕구들까지 이것들이 욕망으로 발전해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원하게도 하고, 그것에 미쳐 파멸하게끔 하기도 한다. 욕구들을 욕망으로 발전시키고, 어떠한 욕망이 다른 욕망보다 강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관에 달려있다. 인간에겐 존재의 이유를 찾아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자리잡는데 이것을 충족시키고 다른 욕망들의 조율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치관이다. 가치관을 통해서 사람들은 특정 경험을 행복으로 인지하거나 행복까지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반면에 잘못 자리잡은 가치관은 불행에 쉽게 굴복하거나 가치관 자체를 무너지게끔 하기도 한다. 나아가, 가치관은 의의는 인간의 축복이자 저주인 시간관념에게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해준다. 삶의 유한성을 자각할 수도 있는 인간에게 현재의 값어치를 학습시킴으로써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행복을 찾아 헤매는 삶을 가져다 준다.

## 참고 문헌

박현정, 『하이데거 존재 사유에서 유한성의 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283쪽

심연경, 『불안 경험의 의미 탐구와 교육의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84쪽

한광희, 『소중히 여기는 것에 관한 욕구와 행복』, 『□□』, 127호, 한국철학회, 2016, 26쪽